



능소화

과명 : 능소화과

학명 : *Campsis grandiflora*

영명 : Chinese Trumpet Creeper

한명 : 凌霄花, 寄生花, 靈霄花

일명 : のげんかずら

▲ 능소화



최 명 섭

임업연구원

몇 년간 서울의 홍릉수목원에서 지켜보니 한여름 장마비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피는꽃이 있으니 능소화이다. 장마비를 피해서 피었다라면 더 오랫동안 아름다운 자태를 뽐 낼수도 있었을터인데 장마가 시작되어 피기 시작하는 능소화는 장마 기간동안 매일 피었다가 지고 장마가 끝날 때 쯤에도 계속해서 몇일간을 더 피는데 다른 나무들은 대부분 이른 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때여서 꽃이 없는 한 여름이기에 더욱 아름답기도 하지만 워낙 꽃 피는 기간이 길고 주먹만한 꽃송이가 한 여름의 무더위를 잊게 할 만큼 시원스런 꽃이다.

예전에는 아무나 능소화를 집에 심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 양반의 집에 만 이 꽃을 심을 수 있었는데 한자어 능소화(凌霄花)의 능자는 능가할 능, 혹은 업신여길 능(凌)자이고 소는 하늘 소(霄)자이고 보면 하늘같은 양반을 능가하고 업신여길 것을 염려하여 붙여진 이름은 아닐까.

영명은 '차이니스 트럼펫 클리퍼' 라고 부르는데 나라마다 각각의 문화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이름으로 꽃의 형태에서 의미를 찾은 것 같다.

1. 생태적 특성

중국원산이며 낙엽활엽의 덩굴성 식물로서 중부 이남의 사철이나 오래

된 서원 같은 곳에서 관상용으로 식재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국의 가정 정원에서 흔하게 볼수있다. 줄기의 길이는 10m에 달하고 줄기 마디에서 기근이 나와 나무 줄기나 건물의 벽에 붙어 기어오르며 자란다. 양지에서 잘자라고 내한성이 약하여 오래 전에 서울에서 식재가 곤란하였으나 기온의 상승 효과 또는 보호 관리가 잘되어서인지 서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꽃이다. 수분이 많고 비옥하며 물 빠짐이 좋은 사질양토에서 생장이 좋으며 해안에서도 잘 자라고 대기오염에도 매우 강한편이다.

2. 형태적 특성

줄기는 길이 10m까지 자라며 나무 껍질은 회갈색으로 종으로 잘 벗겨진다. 잎은 마주나고 홀수의 잎이 한번 갈라지는 기수1회이상복엽(奇數一回羽狀複葉)이고 소엽의 수는 7~9개로 난상 피침형이며 길이 3~6cm이다. 잎의 양면에 털이 없고 가장자리에는 톱니와 녹색의 털(綠毛)이 있다. 꽃은 8~9월에 원추화서에 5~15개가 가지끝에 피고 지름 6~8cm이며 꽃의 속은 홍색, 겉은 적황색으로 핀다. 열매는 삭과(蒴果)로 네모지고 끝이 둔하며 2개로 갈라지고 10월에 익는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나팔꽃 혹은 악기중의 트럼벳을 닮은 꽃은 색



▲ 능소화

상이 화려하며 점잖고 기품이 있어 동양적인 정원에 잘 어울리고 고목이나 돌벽 혹은 시멘트 벽에 붙여 키우면 쉽게 붙어 올라가므로 공공장소의 휴식장소에 심어서 늘어지는 잎과 홍색의 아름다운 꽃을 동시에 감상할수 있다. 우리 임업연구원의 경우 중앙 잔디원에 몇 백년된 주목의 고사목에 붙여 식재한 능소화는 여름철이면 화려한 꽃나무로 변하고 있고, 원주 가공한 목재 울타리에 식재된 능소화는 울타리를 넘어 피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감탄사를 연발한다. 벽에 붙어 올라가는 능소화는 광릉의 국립수목원 박물관 동변 돌로된 담벼락에 붙어 자라는 능소화는 명물이 된지 오래다.

능소화 꽃의 수꽃 가루가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어 눈에 들어 가면 실명을 한다고 하나 지금껏 능소화 꽃가루로 인해 실명되었다는 자료를 보지 못해 주의는 요하지만 조경용으로 식재하는데 크게 구매받을 필요는 없을것으로 판단된다.

4. 번식법

번식은 삽목으로 대부분 하게 되는데 뿌리나 새로자란 줄기로 한다

- 삽목번식

이른 봄이나 7월경 전년도 가지나 새로자란 가지를 20cm길이로 잘라 오염되지않은 토양에 삽목하고 공중습도를 높여주고 약간의 해가림으로도 쉽게 뿌리를 내려 새로운 개체를 얻을수 있다.

5. 그 밖의 용도

한방에서는 꽃을 약용으로 사용한다. 꽃 피는 시기에 꽃을 말려서 이용하는데 나쁜 성분의 피를 제거하여 어혈이나 혈열로 인한 질병에 효과가 있고 그 밖에 잎과 뿌리를 한방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